

출판시장 견인하는

'장수 상품'

출판 전문지

Japan

백원근 |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고급 서평 주간신문 (주간 독서인), 매스컴업계 전문지 (문화통신), 출판유통·시장 전문지 (신문화)의 최기호 1면.

〈출판뉴스〉통권 2,000호(2004년 3월 하순호)의 표지. 때마침 동아시아 공동 출판 프로젝트로 완성된 《동아시아에 새로운 책의 길을 만든다》 진행과정을 소개한 특집이 실렸다.



출판 관련업계 종사자를 위한 정보나침반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공부 모임'이 출판문화 구성원들의 풍속도로 자리잡은 일본 출판계에서, 최신 정보를 전하는 출판 전문지가 장수하는 모습은 극히 자연스럽다.

지난 3월 말 '출판 종합지'를 표방하는 순간지旬刊誌〈출판뉴스〉가 지령 2,000호를 돌파했다. 별다른 생일치레도 하지 않은 이 잡지는 1941년 7월 당시 국책으로 일원화된 유통기구인 일본출판배급주식회사(日配)의 기관지로 탄생하여, 1949년 10월부터 현재의 제호로 재창간하며 오늘에 이르는 출판계 전문지다. 시의성 있는 특집과 최신 출판계 속보, 해외 주요국의 출판정보, 신간분류 목록 등이 주요 아이টে마다.

이 잡지가 오늘날 일본 출판계를 대표하는 매체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은 출판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시야와 균형감각에 기인한다. 새해 베푸에는 주요 저자들의 집필계획을 앙케이트로 조사해 신기도 하고, 출판계뿐 아니

라 도서관·유통·인쇄·지방출판 등 책문화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기사를 꾸민다. 관련 종사자 누구라도 일독할 가치가 있도록 망라적이며 유려한 편집방침을 견지한다.

잡지를 발행하는 출판뉴스사(대표 清田義昭)가 매년 발행하는 《출판연감》은 전자책(e-book) 신간목록과 매체별 서평 리스트는 물론, 각종 출판 데이터와 출판 단체별 활동까지 망라해 출판활동의 귀중한 기록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판의 역사를 살피는 데 불가결한 기본문헌인 셈이다. 매년 축하 간행하는 《일본도서총목록》(CD-ROM판)은 현재까지 발행된 모든 일본 도서의 서지사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홈페이지(www.snews.net) 역시 각종 링크집과 당일 신문기사의 출판뉴스를 업데이트 하여 출판정보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는 〈출판뉴스〉 못지않게 오랜 관록과 특성을 갖춘 서평지나 출판 시장 정보지가 수십 종 발행되고 있다. 4월 중순 현재 기준으로 서평지〈주간 독서인〉은 2,533호, 출판유통·마케팅 전문 주간신문〈신문화〉는 2,545호, 출판·신문·광고 등을 포괄하는 매스컴업계 주간신문〈문화통신〉은 3,542호를 발행했다. 한결같이 책과 관련된 종사자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정보매체들이다.

이들 정보지는 평균 1만 부 내외를 발행하는데, 축쇄판을 내거나 주요 시리즈 기사내용을 단행본으로 발행할 만큼 콘텐츠의 정선도와 재활용도 중시한다. 특히 출판 비즈니스지로 성가가 높은 〈신문화〉는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라 할 것이다. 출판 시장의 일주일간 흐름을 정리한 이 주간지는 대형 출판사의 결산내용부터, 트렌드 정

이 글을 쓴 백원근은 현재 (재)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업계 주간지 <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

일본의 주요 출판정보지·서평지 현황

제호 발행처	창간일 발행주기	매체 성격 주독자층	매체 강점
문화통신 문화통신사	1946 주간	언론업계지 언론계 종사자	업계정보, 트렌드 기사
도서신문 도서신문사	1949 주간	신간정보지 연구자, 고급독자	학술서 서평, 저자 인터뷰
출판뉴스 출판뉴스사	1949. 10 월3회간	출판종합지 출판계/도서관	출판계 정보, 도서관 신화 신간목록
신문화 신문화통신사	1951 주간	출판계 정보지 출판계/도서관	업계 뉴스, 성공전략 등 기획기사
주간 독서인 독서인	1958 주간	서평전문지 도서관/연구자	인문서 서평
책의 잡지 本の雑誌社	1976.5 월간	대중독서문화지 애사가 일반	독단적 서평, 베스트 10 선정
이 미스터리가 놀랍다! 보도사	1988 연간무크	미스터리 서평지 미스터리 마니아	미스터리의 베스트랭킹
다빈치 리쿠르트	1994.5 월간	대중독서정보지 10대후반~20대	흥미 분위 독서정보, 각종 베스트 선정

《스테디셀러 목록》도 발행하는데, 단순한 목록이지만 서점과 도서관 등에서 필독 참고자료로 상용할 만큼 호평을 얻고 있다.

주목할 만한 신간 정보지로는 앞서 언급한 <다빈치> 말고도 <책의 잡지本の雑誌>, <이 미스터리가 놀랍다このミステリがすごい!> 등이 있다. <다빈치>는 잡지 노하우가 탁월한 리쿠르트사(잡지 50여 종 발행)의 계열사에서 발행하며, 올 컬러 200페이지 내외의 월간 대중 독서정보지이다. '전혀 새로운 책과 만화의 정보 매거진'이 캐치프레이즈였던 <다빈치>의 주독자층은 20대 중반으로 여성이 60퍼센트, 대학생이 2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잡지의 강점은 유명 연예인을 표지로 내세우면서 매우 자극적인 기획물(예: "일본 미혼여성은 누구의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가" 등)이나 각종 베스트 10, 독자가 선정한 별난 베스트 랭킹 순위 등 흥미 위주의 오락 감각에 있다. 말하자면 책을 소재로 지면에 꾸민 오락 프로그램이다. '신문을 읽지 않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만든 잡지'로서 내용의 주요 컨셉은 유명인의 책 소개, 시의성 있는 책 선정, 각종 베스트 랭킹으로 나타내는 '데이터주의', 장정이나 락카피가 우수한 책만을 별도 선정하는 식으로 책의 외양적 접근을 피하는 등 실험정신이 전면에 드러

나 있다. 소개되는 책들도 학술서나 전문서는 거의 배제된다. 본래 이 잡지는 출판광고 모음 잡지로 기획되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잡지 후반부의 20페이지 분량은 완전히 출판사 광고란으로 채워져 있다. 과월호 기사에 대한 유료제공 서비스도 실시한다.

<책의 잡지>나 <이 미스터리가 놀랍다!> 역시 파격적인 내용과 베스트 랭킹으로 나름의 입지를 갖고 15만 부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한다. 미스터리 소설 마니아층을 상대로 하는 <이 미스터리가 놀랍다!>의 베스트 랭킹은 유명 문학상 수상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평이 높고, <책의 잡지>는 출판광고 분야 광고대행사로는 독보적인 하쿠호도를 통해 웹진을 종이잡지와는 별도 내용으로 발행하여 상승효과를 추구한다.

이 외에 무가지의 사례도 있다. 일본서적출판협회가 발행하는 <앞으로 나올 책>은 출판분야별 약식 도서정보지로서 출판사에서 게재료를 받고 전국 서점에서 무가 배포한다. 2001년 7월 창간된 신문 형식의 격월간 북레터지 <책이 좋다! MAP신문本が好き!MAP新聞>은 30만 부를 무가지로 전국 서점에서 배포해 주목받은 바 있다. <출판뉴스>와 기사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책과 인생>(범우사) 등 국내의 일부 도서정보지가 사용했던 이른바 '서점 마크판' 형태로, 1면 상단의 제호 옆에 제작을 의뢰한 서점의 상호를 넣어 발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저널>을 비롯한 수많은 서평지들이 경영난 속에서 힘겹게 발행되고 있다. 그런데 1994년부터 3년여 동안 발행되다 IMF 지원체제 위기 직전에 폐간된 <도서신문>을 업그레이드시킨 출판 비즈니스 정보지가 전무한 현실은 안타깝다. 독자들의 지적 욕구와 다각화된 정보 수요를 뒷받침하는 출판활동이나 서평지 발행은 나름대로 활발한 반면, 경쟁이 가열되는 출판시장의 흐름을 조망하는 안테나가 부재한 상황이다. 되레 일간지에 의존하는 파편적인 출판동향과 트렌드를 넘어서야 할 때이다. 출판시장 정보지는 감觸에 의한 출판과 출판시장의 무질서를 넘어서는 침정이기도 하다. 독자들에게 지식 경쟁력을 운위하듯, 출판계 내부에도 출판시장 관련 지식함양을 위한 공동의 우물이 절실하다. 시장정보와 업계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 비즈니스 전문지 탄생에 기대해 본다. ■